

디지털 신대륙 'METAVERSE'에 지금 탑승하세요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단번에 이해하는 메타버스 3.0

홍성용 지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매일 1500만 원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가 있다. 4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그는 제페토 속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만든다. 지금까지 130만 개 이상의 아이템을 디자인했다. 아바타들의 옷 외에도 신발, 헤어스타일 등을 디자인하는데 개당 22~24원(2020년 9월) 하던 것이 지금은 300~350원으로 올랐다. 제페토에 열광하는 이들은 자신이 꾸꾸는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꼽는다. "눈의 동공 크기나 눈썹, 체형"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현재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150만 명, 등록 아이템은 5000만 개다.

메타버스 열풍이 거세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디지털 지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경제를 창조하는 이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 한다. 모바일 플랫폼이나 온라인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메타버스의 가장 핫한 이슈들과 수익 창출 등을 소개한 '단번에 이해하는 메타버스 3.0'은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



인 홍성용은 '네이버 vs 카카오'를 파헤치며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성공방정식에 관심이 많은데 그 가운데 특히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김재수 KIST원장은 추천의 글에서 "메타버스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제2의 현실 공간"이라며 책의 의미를 부여한다.

미국 전자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 현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퍼런스 중 하나인 코드 콘퍼런스에서 던진 화두로, 그는 "미래 인류가 가상 세계가 아닌 진짜 현실에서 살 확률은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 교수의 시뮬레이션 가설을 인용했기에, 터무니없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메타버스 1.0과 2.0의 시대를 지난 3.0의 시대다. 1992년 SF소설 '스노 크래시'로 대중에게 처음 알려진 때부터 2003년 세컨드라이프 시대까지가 1세대다. 2007년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혁명부터 2010년 구글 글라스로 대표되는 시기가 2.0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 그래픽처리 장치(GPU), 인공지능(AI), VR, AR

등 총체적인 기술의 진화로 정교한 가상세계 구현이 가능한 3.0시대다.

메타버스가 언급될 때마다 단골 키워드로 대두되는 것이 있다. 바로 'NFT'. 대체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이라는 뜻을 지닌 NFT는 한마디로 '복제 불가능한 진품 보증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를 토큰 형태로 디지털 예술품과 비디오 소유권, 게임 아이템 등의 진품' 등을 보증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해례본을 디지털 파일인 NFT로 만들었다. 100개 한정 수량으로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었으며 개당 가격은 1억원이었다. 실제 80개 이상 판매됐으며 재정난을 겪던 미술관 습동이 트었다. NFT는 "객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와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타임스탬프가 합쳐져 고유한 토큰 값이 생성"되므로 안정성과 희소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NFT는 미술과 패션, 스포츠, 게임 등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매개로 홍보, 마케팅을, 개인들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거나 개발자가 돼 수익을 낼 수 있다.

저자는 메타버스를 외면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늦기 전에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다. 스마트 폰을 외면한다고 피쳐폰 시대로 복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치 빅테크 기업이 싫다고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고 기술 진보의 물결대로 삶은 흘러간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깊다. 그리고 넓다.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를 분간해 낼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런 눈이 없다면 꾸역꾸역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입학식을 진행한 순천향대.

열하일기 연구

김명호 지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백과전서적 체제를 갖춘 책이다. 연암을 일컬어 '조선의 대문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다는 방증이다. '열하일기'가 담고 있는 거대한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한 '열하일기 연구'는 박지원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의 성과물이다. 이번에 출간된 '열하일기 연구'는 김명호 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저작으로, 연암 박지원 연구의 흐름을 바꾼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1990년까지 '열하일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성과물은 극소수였다. 전통시대의 연행 사신들이 썼던 여행 기록과 연암 박지원의 연행기는 차원이 다른 만큼 박지원의 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당시 연구자들은 '열하일기' 전체를 조망하는 것보다는 책에 실린 '허생전', '호질' 등 단편과 북학 사상에 중점을 뒀다. 당시만 해도 학계는 대체로 실학사상에 몰두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열하일기 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연암을 파악하고 '열하일기'에 담긴 세계를 조망했다. 또한 문예적 표현 기법을 다각도로 고찰했으며 한편으로 문(文), 사(史), 철(哲)을 포괄하는 종합적 서술을 견지했다.

저자에게 연암은 마르지 않는 샘이고 평생의 화두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는 학자들과 달리 저자는 오롯이 연암이라는 우물에만 집중한다. 이번 수정 증보판은 초판과 달리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 초판의 체제를 유지하되 저자와 학계의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집필했다. <둘째·4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네마토피아

강유정 지음

현실은 영화에 어떻게 침투하는가? 영화가 보여주는 현실의 시각지대는 무엇인가?

'시네마토피아'라는 말이 있다. 영화를 뜻하는 '시네마'와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유토피아'가 결합된 단어다. 표면적으로 '영화의 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곳에 없는 낙원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

문학과 영화, 저널리즘을 오가며 독자적인 비평의 장을 열어나가는 강유정 평론가의 새 비평집 '시네마토피아'는 저자의 영화 비평집이면서 사회비평집이다. 신춘문예에 문학과 평론이 동시 당선돼 데뷔한 후 저자는 2018년 K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를 계기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번 책은 2014년부터 현재 중인 일간지 칼럼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의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먼저 저자는 '영화'의 눈으로 '저널리즘'을 들여다본다. 동시에 '저널리즘'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며 한국 현실정치와 부조리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 '스포트라이트', '트루스'를 매개로 저널리즘 본질과 시스템의 모순을 들여다본다.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을 통해서도 언론 탄압으로 뉴스에서 기자가 사라진 지점을 이야기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아이와 청년, 노년, 여성의 자리를 묻는다. '스물', '소공녀'를 통해 작아져야 가는 청년의 사회적 자리를 언급하며 '그레이트 뷰티', '화장' 등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는 가난과 고립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삭제한다고 지적한다.

<민음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게 왔던 그 모든 당신

안도현 지음

"그래도 살아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안도현 시인이 산문집 '그런 일'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산문집 '내게 왔던 그 모든 당신'을 펴냈다.

2015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써온 글들을 묶은 이번 산문집에는, 시를 쓰지 않았던 시기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곡진한 사연, 집을 지어 경북 예천으로 귀향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1부에는 저자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20명의 이야기를 묶었다. 시인 박성우 박기영 안상학, 화백 김병기 유휴열 등 명사부터, 제자와 친구, 지역에서 교류한 일반인까지 두루 다양한 사람들의 면모가 담겼다.

2부 '몸속 잎사귀를 꺼내 흔드는 날'에는 어느새 시인의 삶에 주요하게 자리 잡은 '식물성'의 눈으로 바라본 비틀린 세계의 현실, 간결해진 마음으로 읽는 시와 책 이야기가 실렸다. 작년에 펴낸 시집에서 '식물도감'이라는 독특한 연작을 선보인 이유와 잃어버린 세상을 보는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3부 '그래도 살아갑니다'에는 지금의 현실을 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단으로 평양 땅을 밟았던 기행문 '평양은 멀지 않다'가 특히 눈길을 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19로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연 속에서 만난 새와 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지난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는 회복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창비·1만4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